

“우주와 삶의 원리 막사밭에 담겼어요”

‘막사밭에 목숨을...’ 펴낸 도예가 최차란 씨

도예가 최차란 씨(75)가 정호다완 재현과정과 그의 인생역정을 담은 <막사밭에 목숨을 쏟아 놓고>(제삼기획)를 내놓았다. 도예가가 흙과 불을 다루는 일에서 한 걸음 물러나 책을 내놓았다는 것이 뜻밖이다. 게다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것, 즉 정호다완 재현에 목숨까지 걸었다는 점이 읽는 이를 놀라린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이제 너무 흔한 말이 되었다. 하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며, 그 맥을 되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묻는 일은 언제나 새롭다. 그러한 물음의 과정에서 우리 것의 의미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도예가 최차란 씨가 혼을 불살라 구워낸 ‘막사밭’의 현재적 의미를 살피는 일은 ‘한국적인 것’의 진정한 의미를 살피는 일이기도 하다.

최차란 씨가 막사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71년 일본 도쿄박물관에서 ‘정호다완(井戸茶碗)’을 목격하면서부터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우리의 사발에 ‘국보고려정호다완’이란 이름표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이를 본 순간 조선 초기의 그릇이 어떻게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었는지 의문이 생기지 시작했다. 그 내력을 알기 위해 다완들을 만나고 다도까지 배웠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결국 그는 사발을 직접 구워 보지 않으면 그 해답을 찾을



정호다완 재현 등 글로 쓴 ‘항토사랑’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 74년 경주 토함산 기슭에 새둥이 (해를 가장 먼저 맞는 동쪽의 개울이라는 우리말)요를 만들고 재현에 들어갔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막사밭의 가치와 방법을 서서히 터득했다. 그 과정에서 나름의 철학도 정립했다. 걸으며 보기에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정호다완이 일본 국보로 지정된 것은 바로 ‘자연의 마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란 사실도 깨달았다. 무구한 본성을 지키고 사는 서민들의 자연스런 마음의 상태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그 서민들은

먹고살기 위한 순수한 마음, 즉 무아무심(無我無心)의 상태에서 막사밭을 빚어냈던 것이다. 반듯하지도 매끄럽지도 않고 걸치레라고도 찾아볼 수 없는 정호다완이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인간 본래의 순수함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국보로 지정했던 것이다. 그는 물레를 돌리면서 회전의 철학도 터득했다. 물레 가운데 사발을 놓고 돌리면 아무리 빠른 회전에도 떨어지지 않지만,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두 바퀴도 돌지 못하고 떨어진다. 인간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이다.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것이 곧 진리인



막사밭의 정신은 욕심 없는 삶이다. 이를 위해 최씨는 성형에서부터 불에 구워져 완성될 때까지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 열정은 곧 무욕의 경지에 드는 일이기도 하다.

것이다. 특히 회전 원리는 표현의 방법이 다른 불교의 율회사상과도 맞닿아 있다고 한다. 회전원리로 무형의 흙에서 그릇이 만들어지듯, 생명도 율회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그렇게 탄생된 그릇이나 생명이 사라지면 지(地)·수(水)·화(火)·풍(風)으로 다시 돌아가 회전(율회)의 원리에 의해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된다는 것이다. 결국 막사밭은 만드는 과정과 정신이 불교의 진리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정호다완을 재현하면서 우리의 다도를 재정립하고 보급하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리의 반상철학과 연결시킨 ‘새둥이 다도’를 발표하는가 하면, 이를 사회적으로 보급하는 다인회 활동도 적극적이다. ‘다도교본(기침)’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도예가로서의 순탄하지 않았던 그의 삶은 가슴을 저미게 한다. 폐암(24살)과 자궁암(35살) 그리고 전신암(69)으로 삼과 죽

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면서도 식지 않는 ‘항토사랑’은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고려청자가 세계 최고’라고 자위해온 우리는 가장 우리다운 막사밭에 대해서는 그 동안 등한시했다. 이로 인해 일본사람들에게 전통문화까지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면서 흙을 만지고 밟고 며칠 가마솥에 불을 지펴 탄생한 정호다완을 구정(古井: 우주와 삶의 원리를 담는다는 뜻) 사발로 부르는 것도 우리문화를 되찾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다. 이런 점에서 막사밭 재현을 위해 반평생을 바친 도예가의 이야기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그는 말한다. 반평생 막사밭의 정신을 추구하다 보니 웬만한 일에는 노여움도 분함도 생기지 않는다고. 막사밭의 정신은 욕심이 없는 삶이기 때문이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opia.com)

새로운 책

▲수덕사(글=고영섭·윤희상·유마리, 사진 박보하)= 대원사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 불교문화 44번째 권. 수덕사의 역사와 건축 그리고 유물을 100여 컷의 사진을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한다. 이 사진 가운데 일제강점기 때의 대웅전 수리 전·후의 모습과 목서명 사진은 처음 공개되는 것. 또 고려시대 건축의 아름다운 곡선미를 자랑하는 대웅전과 그 안에 장식된 벽화 모사도는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며, 선사들에 대한 일화들은 선지종찰 수덕사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값 4천8백원.



▲요가(이태영 지음, 여래)= 요가 이론사나 실천행법을 담은 지침서. 요가의 역사를 비롯 요가의 종류, 수행자를 위한 조언 등을 <하타요가프라디피카>, <게리다상하타>, <쉬바상하타> 등 요가의 대표적 경전 3권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1장에서는 아트만, 업과 율회, 요가에 대한 해탈 등 요가의 우주관과 인간론을, 2장에서는 요가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 음식 및 수행자가 좋은 장소와 시간 등 수행 요건에 대해, 3장에서는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체위법, 4장에서는 호흡법의 종류를, 5장에서는 실천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무드리의 종류 및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값 8천원.



▲화랑도(군불교전흥회 펴냄, 글·그림 정수일, 감수 이하진)= 군불교전흥회(화장 정각 스님)가 군불자 및 청소년 포교용으로 펴낸 만화책.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화랑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화랑도의 세속오계와 호국정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 이와 함께 군불교전흥회는 <만화로 보는 지장경 상·하도> 펴냈다. 이 책을 법보시 하고자 하는 불자들은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02)749-5135.



▲산보로 여인숙(하성란 지음, 이룸)= 동인문학상 수상작가 하성란 씨의 장편소설.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문제 즉 죽음을 파헤치고 있는 이 소설은, 주인공 진명(나)이 생명이 남동생 선명의 죽음에서부터 발을 내딛어 산보로 여인숙에 다다르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과정은 수수께끼를 푸는 형식이다. 죽은 생명이 보물창고 놀이를 하듯 숨겨놓은 네 개의 작은 종 가운데 마지막 한 개의 종은 누구에게로 갔을까. 값 7천5백원.



▲한문과 우리말로 쉽게 쓰고 익히는 경전(덕진 스님 편저, 정도불교대학)= <예불문>, <반야심경>, <법성계> 사경집으로 한문·한글쓰기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값 4천원.

간디의 경제관 “잠시 말았을 뿐 내것 없다”

아지프 다스굽따 ‘무소유의 경제학’

모한다스 가람찬드 간디(1869~1948)의 사상을 경제적 관점에서 살피고, 그의 경제관론과 철학을 현대사조의 패러다임을 통해 재해석한 <무소유의 경제학>(술이 우리말로 출간됐다). 글쓴이 아지프 다스굽따는 간디를 ‘경제학자’로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간디의 경제관 ‘이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인도의 현실 인식에서 나온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비전이었음을 조목조목 짚어낸다.

그 동안 우리에게 소개된 간디에 대한 서적들이 그의 생애나 종교 혹은 종교철학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이 책은 간디의 경제 사상을 주제로 현대 경제, 철학의 중심적 문제들을 다양한 사상가들의 입장과 비교했다는 점에서 그 전문성이 두드러진다.

글쓴이는 ‘개인’을 경제와 사회활동의 주체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기 이익 추구를 지향한다는 ‘개인의’와 차별을 두기 위해 ‘무소유적 개인주의’라는 용어로 간디 사상을 특징짓는다.

경제학은 삶의 정신적 토대와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경제학과 정치는 물질적인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종교적, 문화적, 정신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간디의 무소유 사상, 즉 ‘보관인 정신(내 것은 내가 잠시 맡아둔 것일 뿐이다)’은 그의 자아실현 개념인 ‘진리파지(眞理把持)’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 경제관론이다.

간디의 관점에서 볼 때 정신적 가치는 정치, 경제, 농업, 교육 그리고 그 밖의 일상생활의 활동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종



교도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통합된 관계 속에서만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에 갈등이 사라진다. 경제와 윤리가 분리되면 탐욕, 부패, 경쟁, 권력 추구, 약자에 대한 착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시장중심의 소비사회에 대한 가치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경제학을 찾아야 할 필요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간디의 ‘참되고도 덕적인 경제학’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무한 경쟁의 논리와 욕망 충족의 극대화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간디의 ‘무소유 사상’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눈 여겨 볼만하다. 값 9천5백원. 김중근 기자

■ 탁날한 스님의 마음공부 제안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

요즘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겨 자기의 삶과 생활을 잊기 쉽다. 프랑스에서 명상을 위한 작은 공동체를 지도하고 있는 베트남 탁날한 스님이 쓴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지혜의 나무)는 현재 이 순간을 잊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제안을 한다.

‘숨을 들이쉬면서 난 평화롭다. 숨을 내 쉬면서 난 미소짓는다.’ 이 책은 이러한 주제의 가벼운 명상법으로 순간 순간을 관찰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탁날한 스님의 명상법은 호흡을 의식하면서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을 ‘마음집중’하여 관찰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방의 면벽수행과는 다르다. 언제 어디서나 ‘숨 들이쉬기’ ‘숨 내쉬기’를 하면서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음식을 먹으며, 홀로 걸으며, 전화를 받으면서 숨쉬기를 실천하여 마음 속에 건강한 삶의 씨앗을 심고 싹 틔우는 것이다.

진정한 마음의 힘은 마음의 평화에 있다고 한다면, 일상 속에서 매순간 ‘마음집중’ 수련을 하면 내면의 평화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탁날한 스님이 권하는 명상으로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사신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야문
2	삼천사월요법	박 남 희	정신세계사
3	전생가기 참 쉽다	설 기 문	도 솔
4	영가천도	우 흥	효 팀
5	단백에 율회를 묶는 가르침	김 지 수	불 광
6	달라리 라라, 삶의 내기 지리	주 민 황	숨
7	전통사찰음식	적 문	우 리
8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리 라라	문 이 담
9	리마나 마하쉬와와 진아	대 성	탐 구 사
10	석가모니 승기동화	해룡·이평	은 하 수

도서 안내: (02)737-0695

설기문 지음 / 값 8,500원 •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설 교수가 안내하면 혼자서도 전생가기 참 쉽다

전생 다녀오는 시간

45분

전생유도 테이프 포함

국내 최초의 전생 매뉴얼북

- 전생 유도 테이프에 의한 최면으로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른 방법. 45분짜리 테이프를 한 번 또는 두 번 듣기만 하면…….
- 펜들럼·점막대·손가락·거울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마술과도 같지만 분명한 사실, 거울 속의 내가 어떻게 이룰 수가……. 내가 말을 건네면 꿈은 반드시 응답한다.
- 현재의 나와 내 주변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나는 전생의 가장 완벽한 증거, 주의 깊게 주위를 다시 보면…….

설기문
동아대 교수·미국 공인 최면 전생 치료사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미국 인터넷서널 대학교 상담심리학 박사,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객원 교수 역임.
KBS TV <미스터리 추적>을 포함한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

유명한 사람들의 전생 이야기

데이비드 베넌 / 서민수 옮김

그들이 유명하게 된 까닭은?



● 정주영
중국 수왕조 시대 대운하 공사 감독관 1300년대
태국 부농 집안의 수장 1800년대
중국 광둥의 상인



● 김대중
세종 시절의 학자 1700년대
네덜란드에서 출생



● 박정희
고려말 최의의 환생



● 전두환
고려말 최충현의 환생

전생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할까?
- 부부는 어떻게 만나게 되나?
- 친재들은 어떤 친화의 경로로 태어나는가?
- 유학자들은 정치인·목회자로 많이 탄생했다.
-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인의 전생을 보았을까?
- 이미 바티칸 신학자의 50%가 율회를 믿고 있다.

세계 유명 인사 40인 포함
문선명, 존 레논, 브루스 리, 김일 지브란, 에머슨, 스티븐 김, 괴테, 칸트, 헤겔, 베이컨, 디즈니, 록펠러, 처칠, 고모르초프, 엘리자베스, 빌리 그레이엄, 카신저, 슬제니친 외